

장소적 맥락성 인식 기반 콜롬바 뮤지엄 사례 연구

A Study on the Kolumba Museum Based on Perception of Place Contextuality

○이 근 호* 이 명 식**
Lee, Keun-Ho Lee, Myeong-sik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Kolumba Museum through the concept of “place contextuality recognition,” extending Norberg-Schulz’s theory of genius loci. From historical, environmental, and cultural contexts, three characteristics were derived—layered time, sensory materiality, and environmental identity—leading to four architectural proposals: memory centralization, transitional boundary, immersive narrative, and stratified expansion. The study suggests their potential as design strategies for regeneration architecture.

키워드 : 장소성, 건축 현상학, 노르베르그-슐츠, 콜롬바 뮤지엄

Keywords : Placeness, Architectural Phenomenology, Norberg-Schulz, Kolumba Museum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현대 도시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과거의 흔적이 지워지고, 장소가 가지고 있던 고유의 의미가 점차 상실되고 있다. 도시의 기능 변화에 뒤처진 건물은 유휴 공간으로 전락하고, 현대적인 기능적 요구에 따라 새롭게 지어진 건물들은 공간, 길, 경관 등을 모조리 바꾸어 이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장소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장소성이 어떻게 현대 건축에 의미 있게 반영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대두되고 있다. 장소성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특징을 넘어, 인간 존재와 주변 환경, 시간, 사회적 관계가 얹혀 형성되는 복합적인 개념이다.

본 연구는 노르베르그-슐츠의 장소성 이론의 확장을 통해 ‘장소적 맥락성 인식’이라는 개념을 제안하여, 장소 해석을 구체적 건축 설계 전략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는 기존의 장소 이론이 갖는 한계 보완을 통해 전환한 개념으로, 이를 바탕으로 실제 재생건축물의 사례를 분석하여 건축물이 갖는 장소적 특징을 도출해 설계 전략을 구체화해 나가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르베르그-슐츠 건축 현상학의 배경이 되었던 에드문드 후설, 하이에커,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논의를 통해 장소성의 요소를 도출한다. 둘째, 노르베르그-슐츠가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에서 제안한 장소성 이론의 의의와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전환하여 장소적 맥락성 인식의 개념을 제안한다. 셋째, 장소적 맥락성 인식의 구조를 기준으로 재생건축물의 사례인 콜롬바 뮤지엄을 분석한다. 넷째, 분석의 내용으로 콜롬바 뮤지엄의 장소적 특성을 도출하여 장소적 맥락성 인식을 실천적 건축 설계 전략으로 구체화하고자 한다.

2. 장소적 맥락성 인식

2.1 현상학에 나타난 장소성

장소성에 대한 연구의 이론적 기반은 현상학이다. 현상학은 우리가 일상에서 직접 경험하는 생활세계의 현상을 출발점으로 삼아, 주의 깊은 관찰과 기술을 통해 현상들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는 철학적 방법이다. 현상학을 창시한 에드문드 후설(Edmund Husserl)은 의식이 독자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무엇을 향한 의식이라는 지향성을 중심 개념으로 삼았다. 특히 후기 사상의 생활세계 개념은 인간이 살아가는 구체적이고 감각적인 세계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 동국대 대학원 석사과정

** 동국대 건축학과 교수, 공학박사

(Corresponding author : Department of Architecture, Dongguk University, mslee@dongguk.edu)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과제입니다. (RS-2024-00441420)

(1) 하이데거의 실존 현상학

하이데거는(Martin Heidegger)는 후설의 현상학을 존재론적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그는 후기 에세이 ‘건축 거주 사유(Building, Dwelling, and Thinking, 1951)’에서 장소와 건축을 거주의 개념을 통해 철학적으로 통찰하였다. 그에 따르면 건축의 본래 의미는 거주이고, 거주할 능력이 있을 때라야 비로소 건축할 수 있다¹⁾. 하이데거에게 장소란 주변으로부터 대지를 결집하여 모아들이는 것이고, 인간 존재가 세계와 관계 맺으며 의미를 형성하는 근본적 토대이다.

(2) 메를로-퐁티의 지각 현상학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는 후설과 하이데거의 현상학을 지각과 신체의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그는 ‘지각의 현상학(Phenomenology of Perception, 1945)’에서 인식이나 표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몸이라는 사실을 밝혔다²⁾. 메를로-퐁티에게 장소는 단지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지각과 운동,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형성되는 실존적 장이다. 그의 철학은 장소성의 본질을 몸을 통한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찾으려 한다.

(3) 현상학에 나타난 장소성 요소

앞서 살펴본 후설, 하이데거,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적 사유는 장소성의 구체적 이해를 위해 시간성, 체험성, 맥락성이라는 세 가지 범주로 표1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1. 현상학에 나타난 장소성 요소

현상학자	장소성 요소	장소성 요소의 특징
에드문드 후설	체험성	감각적, 경험적 세계를 철학의 출발점으로 설정
마르틴 하이데거	맥락성	장소는 주변 대지의 결집이며, 세계와의 관계 속에 의미 형성
메를로-퐁티	시간성, 체험성	과거, 현재 미래가 얹혀 세계 경험, 몸의 감각적 경험으로 세계와 관계

2.2 노르베르그-슐츠의 장소성 이론

노르베르그-슐츠(Christian Norberg-Schulz)는 장소의 이해를 위해 현상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였다. 그는 ‘지니어스 로사이(Genius Loci, 1979)’에서 장소가 단지 시각적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성격이라는 두 차원이 긴밀히 상호작용하여 환경적 총체성을 이루는 구조라고 설명한다. 이때 공간은 장소의 형태적 질서, 즉 중심화, 방향, 리듬, 위요, 확장 등 형식적 체계를 의미하고, 성격은 장소의 고유한 분위기, 즉 재료, 색채, 질감, 빛 등 감각적 속성을 포함한다. 인간은 공간 속에서 스스로의 방향을 정향하고, 환경의 성격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이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자각한다³⁾. 장소는 공간과 성격

이 결합된 환경적 총체성으로 드러나며, 분리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장소의 의미를 형성한다. 장소의 구조 관계는 그림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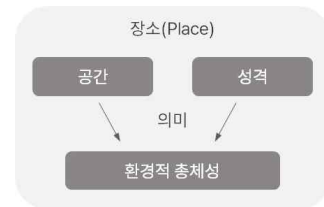


그림1. 장소의 구조 관계도

2.3 장소적 맥락성 인식으로의 전환

노르베르그-슐츠의 이론은 현상학을 건축에 도입하여, 건축을 인간의 실존적 체험과 연결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그는 건축 현상학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였으며, 장소를 공간과 성격의 총체적인 관계 속에서 해석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실천적 적용의 관점에서 장소 이론의 몇 가지 한계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장소를 사회문화적 관계의 산물로 이해하는 차원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⁴⁾. 둘째, 인간의 몸의 감각적 체험과 내부 공간의 분위기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장소의 의미가 건축적 형식에 집중되고, 체험적 차원이 축소되는 한계가 있었다. 구체적 건축 실천을 위해서는 슴츠의 장소성 이론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신체적 체험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건축 설계 전략으로, 장소를 역사적, 환경적, 문화적 맥락 속에서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장소적 맥락성 인식’을 제안한다. 장소적 맥락성 인식으로의 전환 과정은 그림2와 같다.



그림2. 장소적 맥락성 인식으로의 전환 흐름도

3. 콜롬바 뮤지엄 사례 분석

3.1 역사적 맥락

콜롬바 뮤지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파괴된 성 콜롬바 교회의 잔해 위에 건립되었다. 교회의 일부는 전쟁의 흔적으로 남아 있었고, 그 주변에는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중세와 로마 시대의 흔적이 드러나 있었다. 페터 쉼토르는 이러한 역사적 층위를 단순히 보호하거나 제거하는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건축과 공존시키는 방식을 택하였다. 교회의 폐허는 신축 건물의 일부 공간으로 통합되었으며, 불규칙하게 남겨진 벽체는

1) 김현섭, 「하이데거적 장소성과 도무스의 신화」, 아키텍스트, 2019, p. 13.

2) 김화자, “메를로 퐁티의 현상학에 나타난 언어와 회화의 표현성”,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책세상, 2020, p. 116.

3) C. Norberg-Schulz, 「장소의 혼: 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민경호 외 옮김, 태림문화사, 1996, p. 28.

4) 정태용, “노르베르그-슐츠의 현상학이 갖는 의의와 한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6호 통권119호, 2016, p. 94.

전시 공간의 경계가 되고, 고대와 중세의 파편은 지하 공간에서 드러나도록 구성되었다. 방문자는 전시를 따라 이동하며 폐허의 물성을 체험하고, 지하의 고고학적 흔적과 지상부의 현대적 건축이 겹쳐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이로써 건축은 단일한 시공간을 넘어, 파괴와 재생,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복합적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 대한 건축적 접근은 과거의 흔적 존중, 기존 구조 재해석, 건축적 층위 경험의 세 가지 특성으로 도출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2와 같다.

표2. 콜롬바 뮤지엄의 역사적 맥락 분석

구분	그림	사례 설명
과거의 흔적 존중		성 콜롬바 교회의 폐허와 구조를 보존하여 집단적 기억을 드러냄
기존 구조 재해석		기존 벽체의 조직 구조를 현대적인 기술과 방식으로 재해석하여 결합
건축적 층위 경험		서로 다른 시대의 건축 요소가 중첩되어 시간의 연속성 체험

그림 출처: 저자 제작(2025), 저자 촬영(2024)

3.2 환경적 맥락

콜롬바 뮤지엄은 단순히 폐허 위에 새로운 건물을 얹은 것이 아니라, 쾰른 구도심의 맥락과 주변 환경 속에서 건축적 정체성을 형성하였다. 페터 춤토르는 신축 건물을 도시 조직과 연결시키면서도 독립된 존재감을 유지하도록 계획하였다. 특히 재료의 선택은 기존 도시 조직과의 조화를 이루는 동시에, 고유한 감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장치로 적용하였다. 또한 내부와 외부 사이의 경계가 완전히 단절되지 않고 주변 환경과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접근은 환경적 맥락에서 도시 조직과의 연계, 재료를 통한 조화, 약한 경계 형성의 세 가지 특성으로 도출되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3과 같다.

표3. 콜롬바 뮤지엄의 환경적 맥락 분석

구분	그림	사례 설명
도시 조직과의 연계		성당 유구의 평면 따르며, 블록의 중심에 오픈 스페이스 형성
재료를 통한 조화		쾰른 대성당과 주변의 건물들 구성하는 석재 조직 구조와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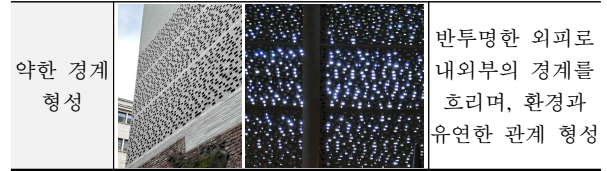


그림 출처: 저자 제작(2025), 저자 촬영(2024)

3.3 문화적 맥락

콜롬바 뮤지엄은 단순한 전시 공간을 넘어, 도시와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담아내는 장소로 기능한다. 페터 춤토르는 성당 폐허와 현대적 전시 공간을 결합함으로써 종교적 성격과 세속적 문화 프로그램이 공존하도록 하였다. 이 건축은 전시, 명상, 도시 기억의 수용을 통해 다양한 문화적 층위를 담아내며, 방문자에게 단순한 미술관 이상의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성당의 잔해가 상징적 공간으로 활용됨으로써 장소가 지닌 집단적 의미가 강화되고, 새로운 중심 공간은 도시와 공동체의 문화적 소통의 장이 된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적 맥락에서 문화 프로그램 수용, 상징적 공간 활용, 중심 공간 형성의 세 가지 특성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4와 같다.

표4. 콜롬바 뮤지엄의 문화적 맥락 분석

구분	그림	사례 설명
문화 프로그램 수용		다양한 문화 기능을 통합하여 일상적 참여와 문화 활동 유도
상징적 공간 활용		공동체 기억을 환기하는 예배당 독립 보존하여 뮤지엄과 연결
중심 공간 형성		전시 공간 내부에 중심 공간을 형성하여 문화적 활동을 수용

그림 출처: 저자 제작(2025), 저자 촬영(2024)

4. 콜롬바 뮤지엄의 장소적 특성과 건축적 제안

앞선 역사적, 환경적, 문화적 맥락의 분석은 콜롬바 뮤지엄이 지닌 장소적 의미를 개별적으로 보여주었으나, 실제 건축 경험 속에서는 이들이 분리되어 작동하지 않고 서로 중첩, 교차하면서 통합적인 장소적 성격을 드러낸다. 이러한 통합적 해석을 통해 본 연구는 콜롬바 뮤지엄의 장소적 특성을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첫째, 시간의 층위 경험이다. 성 콜롬바 성당의 폐허 보존과 기존 구조의 재해석은 역사적 맥락을 드러내는 동시에, 문화적 맥락에서 상징적 공간을 강화한다. 방문자는 지하 고고학 유적, 중세 성당의 잔해, 현대적 신축이 중첩된 공간을 이동하며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다층적 시간을 경험한다.

둘째, 물질적 감각 체험이다. 벽돌과 콘크리트는 단순한 구조적 재료를 넘어 감각적 매개체로 기능한다. 폐허의 거친 물성과 신축부의 정제된 질감이 어우러지며, 방문자는 시각뿐만 아니라 촉각, 청각적 차원에서 장소를 경험한다. 이는 환경적 맥락에서 나타나는 재료의 조화와 경계의 모호성, 그리고 역사적 흔적의 체험이 교차하여 형성되는 특성이다.

셋째, 환경적 정체성 형성이다. 콜롬바 뮤지엄은 켈른 구도심의 보행 동선과 시각적 축과 연계되면서도 독립된 문화적 중심 공간을 마련한다. 이는 도시적 차원의 환경적 맥락과 공동체적 차원의 문화적 맥락이 결합된 결과이다. 따라서 콜롬바 뮤지엄은 단순히 하나의 전시 시설이 아니라, 도시와 공동체 속에서 고유한 정체성을 구축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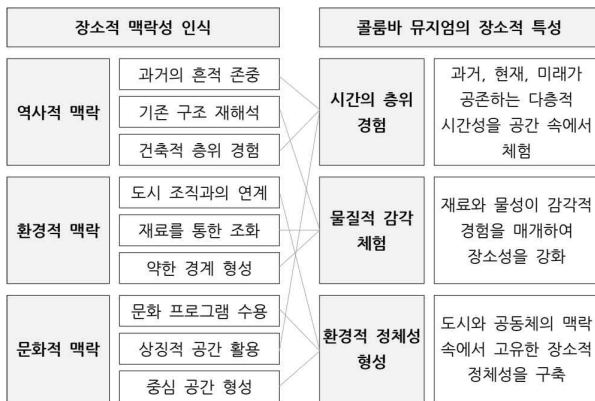


그림3. 콜롬바 뮤지엄의 장소적 특성 도출

도출된 세 가지 장소적 특성은 각각 독립된 요소라기보다 빛과 재료 등이 혼합된 총체적 분위기의 경험으로 나타난다. 이는 숄츠가 ‘지니어스 로사이’에서 제시한 장소의 성격 차원과 동일한 맥락에 놓여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장소적 맥락성 인식이 건축적 제안으로 확장되기 위해서는 성격 차원을 넘어 공간의 차원에서 구체적 요소들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숄츠가 제시한 공간의 요소는 중심화, 위요, 방향, 확장으로, 성격 차원과 결합할 때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건축적 제안이 도출된다.

첫째, 기억의 중심 공간은 장소가 지닌 역사성, 상징성을 지닌 공간을 공간의 중심으로 응집하여, 공간적 위계를 형성하고 문화적 기능을 수용하는 공간이다.

둘째, 전이적 경계 공간은 내부와 외부, 과거와 현재를 매개하여, 관계성을 유지하고 장소 간 전이를 유도하는 공간이다.

셋째, 서사적 몰입 공간은 빛과 재료, 시간의 흐름이 동선을 따라 구조화되며, 내러티브적 동선을 따라 이동과 몰입을 유도하는 공간이다.

넷째, 층위적 확장 공간은 과거 건축 요소의 재해석을 통해 공간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확장하여, 도시 조직과 맞물리며 외부 환경과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콜롬바 뮤지엄의 장소적 특성은 숄츠의 장소 이론의 성격 차원으로 이해되고, 다시 공간 차원의 요소와 결합을 통해 건축적 제안으로 구체화된다. 그 관계는 그림4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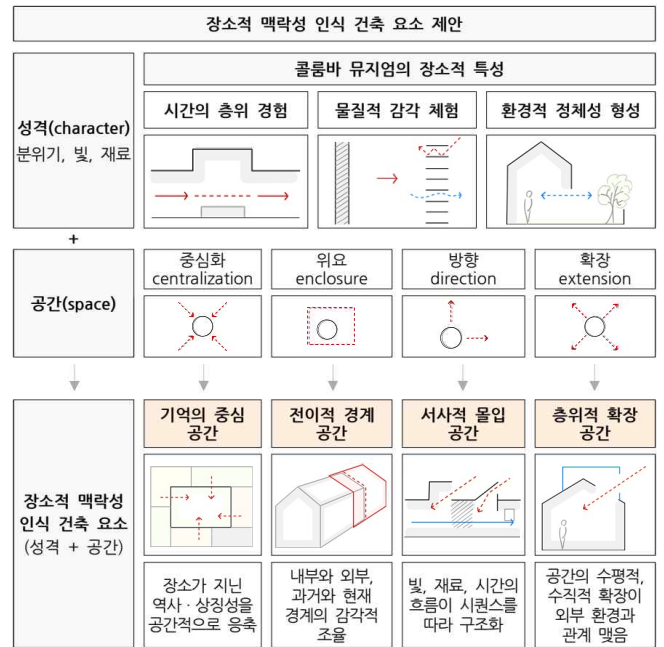


그림4. 장소적 맥락성 인식 건축적 요소 제안

5. 결론

본 연구는 노르베르그-슐츠의 장소성 이론을 확장한 장소적 맥락성 인식 개념을 토대로 콜롬바 뮤지엄을 분석하였다. 역사적, 환경적, 문화적 맥락을 검토한 결과, 콜롬바 뮤지엄에서 시간의 층위 경험, 물질적 감각 체험, 환경적 정체성 형성이라는 세 가지 장소적 특성이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의 특성은 숄츠의 장소 이론의 성격 차원의 건축적 구현으로 드러났으며, 이를 또 다른 차원인 공간의 요소와 결합하여 네 가지 건축적 제안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장소적 특성을 단순 해석에 그치지 않고, 실제 설계에 적용 가능한 공간 요소로 확장했다는 점에 있다. 다만 단일 사례 분석이라는 한계를 지니며, 제안 요소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추가 사례 연구와 설계 적용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의 한계를 다양한 범위의 사례 연구를 통해 보완하여, 제시된 건축 요소들을 복합문화공간을 비롯한 다양한 재생건축 유형에서 장소성을 구현하는 전략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정태용, 노르베르크-슐츠의 현상학이 갖는 의의와 한계,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5권 6호 통권119호, 2016
2. 김현섭, 하이데거적 장소성과 도무스의 신화, 아키텍스트, 2019
3. 김화자, 간접적인 언어와 침묵의 목소리, 책세상, 2020
4. Christian Norberg-Schulz, 장소의 혼: 건축의 현상학을 위하여, 민경호·배웅규·임희지·최강림 옮김, 태림문화사, 1996